

지역 매 아리

초동방역 대응 역량 배양

김제시보건소 '찾아가는
금연실천 건강캠프'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일 검산동 주공1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아파트 거주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실천 건강캠프'를 실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 이번 '찾아가는 금연실천 건강캠프'는 평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검산동 금연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경로당을 방문, 건강체크 (동맥경화/혈관나이검사, 심방세동 체크, 혈압/혈당/체성분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금연도움 프로그램을 통한 금연지도 유도로 흡연을 감소와 금연시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자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고, 프로그램 일정 또한 차분한 가운데 질서있게 운영되며 이웃간에 서로 다양한 검사 체험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캠프가 참가자들의 금연결심과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에 작은 불씨가 되어 건강하게 변화된 김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무료 경로 급식시설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과장 소연숙)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무료 경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및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 무료급식', '무료경로급식' 사업의 급식시설로 면역력이 낮은 건강취약 계층이 단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곳이다.

점검내용은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식자재 관리, 시설물 관리, 식품취급 기구류 관리이며 재료 검수단계부터 식재료 보관, 조리, 배식,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 제공한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은 "무료급식사업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어르신들 돌보는 소중한 사업이다. 소중한 밥 한 끼에 식품 안전을 더하여 어르신들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훈련 실시
21일 고산자연휴양림서 200여명 참여 현장시연

완주군이 최근 아시아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훈련을 진행한다.

20일 완주군은 오는 21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완주군이 주최하는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긴급행동지침 내용 체계 숙달 및 시·군과 방역기관의 초동방역 대응 역량 배양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훈련에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공수의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해 실제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시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완주군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상황단계별 방역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사항을 현장시연이 이뤄진다.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제한, 살처분 등 일련의 방역과정을 영상과 현장시연을 통해 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으로 청정완주를 지키기 위한 다짐으로 농장주와 공무원 대표 그리고 축산대표와 공수의사가 결의문을 낭

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완주군은 현장훈련에서의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개선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선제적 차단방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축사내외 소독,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사육돼지에 대한 매일 임상관찰이 필요하다"며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의심증상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중국발생('18.8.3) 이후 북한·홍콩·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이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에서 7번째로 미얀마의 OIE 공식 발병이 보고됐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20일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2019년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12기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 경쟁력 '쑥쑥'

12기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
가공먹거리 생산해 직매장 공급예정

완주군의 로컬푸드 가공먹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일 완주군은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2019년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12기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농민가공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도부터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이는 2호점이다.

총 31명의 수료생들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6개 과정(반찬·건식·습식·소스·발효·간식반)을 전문강사와 함께 총 48회 동안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가공먹거리를 제품화하기 위한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12기 수료생들은 차후 로컬푸드 가공공동체(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로컬가공먹거리를 생산,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가공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하고,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통한 상생협력

김제시-BGF리테일, 농산물 구매 확대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주)BGF리테일은 20일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축제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진 김제시와 (주)BGF리테일은 업무협약을 발전시키고, 서로의 강점을 적극 살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 및 플랫폼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With(동반), Scale Up(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기도 하는 만남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이 자리에서 BGF리테일은 이미 CU편의점 도시락에 납품되는 김제 쌀(신동진 미)과 더불어 김제시 우수농산물인 고구마로 품목을 넓히고, 앞으로 김제 우수농산물 구매 확대 및 농산물 활용 제품개발 판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제시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성공적인 김제지평선축제

개최를 위한 적극 지원 및 협력에 힘쓰고, 김제시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뜻을 밝혔다.

김제시와 BGF리테일의 협력을 위한 MOU체결이 이루어진 만큼 협력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가간다면 지역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재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초청 시민 설명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일 김제시민, 사회단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지열·바이오 등)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김제시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주택·건물·가정용 설비 중심의 설명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한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SRF) 재생에너지 이용 방안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김제시는 20일 김제 시민, 사회단체 등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최근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갈등사례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초

청 시민 설명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19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진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여성위원 4, 남성위원 6) 등 총 14명으로 이날 회의에서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허진(위원장)이 주재하여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강화되는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 필요성, 규제 기준, 규제 법적근거 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 기존 30호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 적합성에 대한 것이

다.

위원회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 삭제와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지 20여년이 흘러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개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허진 김제시 부시장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